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무익한 말에 대한 심판

(마 12:31-37)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용서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대한 모독의 죄도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원의 역사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지식도 많았고 영적인 이해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행 7:51).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테판 집사를 돌로 쳐 죽이까지 했습니다. 죽임에 처하면서 스테반은 이런 상황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지언정 결코 성령의 역사를 훼방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33절).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하시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마 1:15-20). 그러시면서 특별히 입술의 열매를 강조하셨습니다(34-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36-37절).

무익한 말은 헬라어로 ‘아에르곤’이라고 하며 부주의한, 쓸모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부주의한 말, 쓸모없는 말, 가정과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골 4:6)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말을 하지도 말고, 그 말에 넘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지중이라도 성령 하나님을 훼방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Judgment for a Futile Word

(Matt. 12:31-37)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t is written in this text that though every sin and blasphemy will be forgiven men, and the sin of blasphemy to Jesus will be forgiven, anyone who speaks against the Holy Spirit and blasphemy against the spirit will eternally never be forgiven. Blasphemy against the Holy Spirit is an action to reject the Holy Spirit. Blasphemy against the Holy Spirit is to block God's work. Accordingly, any salvation work cannot start to achieve it.

It was the Pharisees who had a theological knowledge and much understanding of spirit. Nevertheless, the reason why they did not see Jesus as who is he was because he was very different from their thoughts.

“You stiff-necked people! With uncircumcised hearts and ears!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s: You always resist the Holy Spirit” (Acts 7:51).

At the time of early church, church had greatly been revived by the work of spirit and widely spread. But the Pharisees prevented the work of spirit. What was worse, they even stoned to death the deacon Stephan who was founded by God. He, said, at his death, that such a situation resisted the spirit.

The Bible always emphasizes our discernment. We, with our discernment, would rather take part in the work of spirit and extend the Kingdom of God. Yet, we never counteract the work of spi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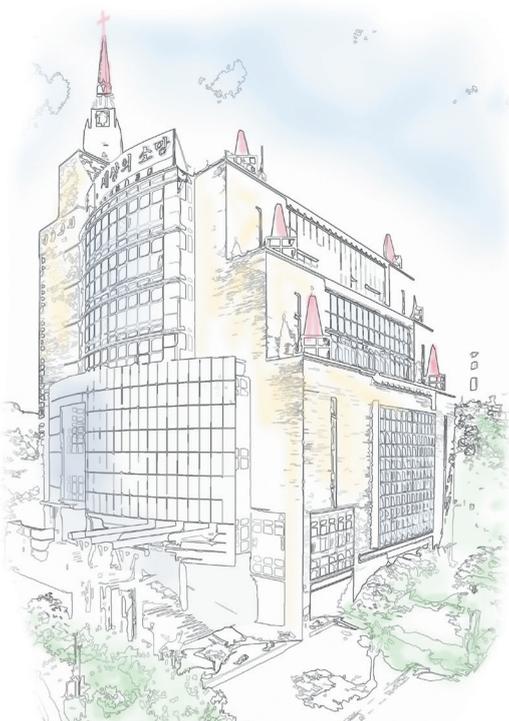
“Make a tree good and its fruit will be good, or make tree bad, its fruit will be bad, for a tree is recognized by its fruit” (v. 33).

The work of spirit is always achieved through men and their effort. If so, who will be the passage of the spirit? Jesus said that a good tree is recognized by its fruit, and people do not pick grapes from thorn bushes or fig from thistles (Matt. 7:15:20). Moreover, He especially emphasizes the fruit of mouth (v. 34-35).

“But I tell you that men will give account on the day of judgment, for every careless word they have spoken. For by your words you will be acquitted, and by your words you will be condemned (v. 36-37).

The word ‘futile’ that refers to the Greek, ‘aergon’ means careless or useless. The careless and useless words which we have spoken, these words that have not cultivated virtue in church and home will not just disappear but will be subject to judgment by God.

Therefore, as “Let your conversation be always full of grace, seasoned with salt, so that you may know how to answer everyone” (Col. 4:6)., we always try to say graceful words, and the word of saving the life of others.



My beloved Christians,

Don't say ungraceful words, and don't fall for its words. You must unconsciously not counteract God, the spirit of God.

All of us must be reborn in Jesus Christ as God's creation. And I sincerely pray that all words from our mouth will be fully filled with the fruit of spir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김만잡 성도



이민화 권사



김은애 권사



김영준 장로



박래원 집사



이경희 권사



조옥순 권사

2014 노약자, 환우 심방



차길조 집사



김진숙 권사



유명중 집사

지난 1월 9일부터 3월 7일까지 박노철 담임목사님께서 매 주 화, 목, 금요일에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노약자 심방을 마치셨습니다. 대부분 서울 교회 개척 당시부터 교회를 섬겨 오시다가 이제는 연로하셔서 병상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목자의 마음으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박중민 권사

지난 1월 23일에는 투병 중이신 김영준 장로님을 심방하셔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말씀을 전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장로님의 쾌유를 구하는 기도를 하신 후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두 주일이 지난 주일부터 지금까지 장로님께서 아침 일찍 모이는 당회에도 참석하시고 주일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계시는 환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실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권사



송인순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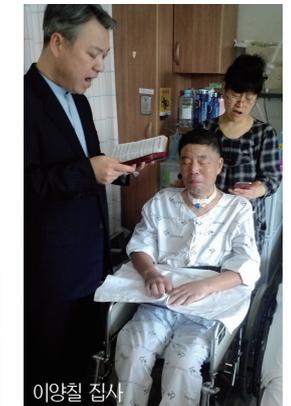
임춘자 권사



허형숙 권사



노영숙 권사



이명철 집사



이기범 집사



이수자 권사



한경석 권사



최정숙 권사



임경희 권사



김명숙 권사



박순옥 권사



송감순 권사



송순옥 권사



주님께서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가다가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그 사랑,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 한 마디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주님이 체포 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본 순간 많은 눈물로 변하고 맙니다. 그 눈물이 참회의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을까요? 어찌 별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며 돌아가셨을까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주님

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너의 생명은 내 피로 샀으니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라.”

겨우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주여, 이 못난 인생이라도 주께서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오직 주님과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바로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꿈꿉니다. 이 복된 일에 우리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
하온이**
하영인 성도 (3교구)

하나님 하온이를 저희 가정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하면 아기 갖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번 유산후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마침내 3번째 쌍둥이가 임신이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고생끝에 한 아이만 자라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던 중 생후 22일째 먹지 못하고 잠도 못자고 토해, 신생아유문협착 진단을 받게 되고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4kg이 갖된 하온이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하온이 살려주세요’ 온가족의 기도와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전신마취 수술을 무사히 받게 되었습니다. 잘 회복되어 지금은 7kg 가까이 자라고 있으며 잘먹고, 잠자는것도 편안해졌습니다.

성경어플을 다운받고 성경 1독을 결심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 기도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48일되던날 교회에 처음나와 축복기도 받게 해주셨으며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매주 주일에 교회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도 주셨으며 2월에는 온 가정의 축복 속에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하온이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온이가 말씀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 잘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축복으로 주신 하온이 믿음안에서 잘 양육하며 말씀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정되었습니다.



고 양정실 권사 추모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유정 집사 (15교구)

“환경이 끊임없이 우릴 흔들어도 변함없는 주님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누림을 감사드리며 우리 다락방 식구 모두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기적처럼 다가올 내일의 건강도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분의 은총에 더욱 감사 감사!!”

그리움에 양정실 권사님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고 또 봅니다. 고통 가운데도 한결 같이 감사하시는 마음과 다락방 식구들을 챙기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조차도 “집사님 난 마음은 평안해” 하시던 3주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너무나 여윈 권사님의 모습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차가운 발을 만져드리며 함께했던 그 시간이 권사님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순간 순간 찾아오는 고통에 주님을 부르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말씀하신 권사님의 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저에게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찬송: 455 (주안에 있는 나에게)
94 (예수님은 두주신가)

사면: 119 = 57 ~ 77

< 포기하지 않아요, 습니다 >
예수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른다.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의 물례를 배워서 되었네요!
포기 하지 않나.
기적의 주인공은 세계를 대변 강령하는 간증자 되기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천국의 광선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감탄을 뱉었습니다. 보게 하옵소서
부흥 뿜아 걸지 마시라 “예수의 피”
시온의 찬양 주옵소서
목양아 예수 이름으로 세나가라, 피가 강하
세나가라 ...

양정실 권사님 마지막으로 남긴 글

자신의 아픈가운데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시는 권사님, 교회와 다락방 식구들의 안부를 찬찬히 물으셨던 권사님, 권사님은 제가 정말 닳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단번에는 아니더라도 시나브로 나이질 수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권사님의 소식을 접한 순간 “안 돼요! 왜요! 그럴 순 없어요!” 라며 원망의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권사님을 보며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물과 불을 없애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 물가운데 건너가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해 가는 연약한 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되 외롭거나 무능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심을 알았습니다.

권사님을 통해 권사님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가셨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B.M.W. 타고 오세요



1. 우리교회의 주차 상황과 문제점

서울교회가 대치동 예배당에 입당한지 13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부흥되어 외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지상, 지하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교회 앞 도로가 심각한 정체상태가 되는 것은 성도들 모두 매주 보고,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래 전부터 교회 주변의 대로변과 골목들 마다 성도들이 세운 자동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금년들어 주변 아파트로부터 주차관리의 질서협조를 당부하는 요청문서까지 접수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세워둔 차량이 불법주차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으며, 주차를 못해 예배를 못드렸다는 새가족들과 장애 성도들의 가슴 아픈 하소연도 있어 교회에서는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몇 년전부터 주차장 확보문제와 성도들의 대중교통 이용 하기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삼성로변 주차장과 강남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이용토록 홍보,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근거리 주차장 확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성도들의 미온적인 협조로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2. 범 교회차원의 주차문제 해결운동 실시

이렇듯 어렵게된 주차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서울교회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범 교회차원의 BMW(Bus, Metro, Walking)캠페인을 계획하고, 지난주부터 당회원을 중심으로 시행중이며, 금주부터는 전 성도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 1) BMW 캠페인은 주일예배에만 적용하며 연중 실시합니다.
- 2) 교통약자 성도들과 새가족 차량을 최우선으로 주차안내 합니다.
- 3) 교회 인근 지역 거주 성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 4) 차량운전 성도들은 강남구민회관 지하 주차장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5) 향존직분자들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김희진 김휘 김예원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3월10일(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임시총회에 참석한다. 12일(수) 한국로잔위원회 월레모임에 참석한다.
- 박사학위 취득 : 서문상 성도(서경학 집사, 이영숙권사 장남) 영국 런던대(UCL) 의과대학에서 뇌과학 박사학위
- 피선 : 서울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최미아권사, 임원 최종희 권사, 최금숙 권사
- 부임 : 13교구 박진호 집사 타이어프로 대치점 사장 (02-558-8580)
- 부임 : 15교구 박홍래 집사 수원지방법원 성년지원 지원장
- 득남 : 9교구 김관호 성도, 이정규 성도 가정 (김재길 성도 정명순 권사 차남)
- 주간식당봉사 :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3.9) 엘리야선교회 에스더 전도회(3.16)
- 금주의 식사 : 강진환 집사 가정 (고 양정실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음악교실 개강합니다

3월16일 주일 오후 1시40분 601호

3월16일 주일 오후 1시40분 601호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고자 하시는 성도님과 지역주민을 위해 음악교실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음악 교실에서는 음악적 소질을 적게 타고나신 분께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것이며 음악적 소질을 많이 타고나신 분께는 실력 향상을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 음악 교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10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성도님들의 음악적 실력향상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좋은 찬스를 맞게 됩니다. 우선 박영준 찬양지도 목사님의 첫시간 영성훈련을 받은후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호흡법과 발성법을 초등학교생이라도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실습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악보 보는 법인 계명창법을 배우며 음표와 쉼표, 리듬과 박자등등 음악통론 전반 걸쳐 기본적 음악이론을 배웁니다.

또한 세계적 유명 전문합창단의 연주실황 감상을 통해 청각의 훈련을 같이 하며 유명 성가곡 부르기를 통한 실기수업도 병행합니다.

이와같은 과정은 음악교실을 이수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서울교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고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서울교회 성도님과 지역주민 여러분을 위해 음악교실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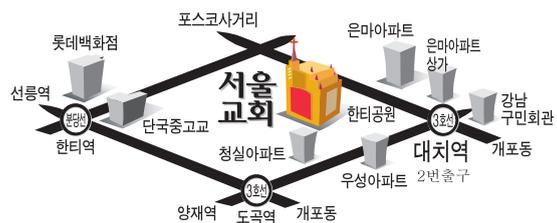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병상중에 혹은 연로하셔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2.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3. 교회와 교회 주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하는 BMW 운동이 향존직분자들의 솔선수범으로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